

아오야마 가문 주택

에도 시대(1603~1867)에 이와미 은광을 직접 관리 하에 둔 도쿠가와 막부는 현지의 행정관인 은광 부교(무가 시대에 행정 사무를 담당했던 장관급 관리)에게 광산 자체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토지까지도 관리하게 했습니다. 이러한 토지에는 150 개 정도의 마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, 이들 마을의 주민들이 부교쇼(부교가 집무하는 관청)에서 공적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오모리 마을까지 찾아가야만 했습니다. 1700 년대 중반에는 마을을 여섯 그룹으로 나누어 오모리에 머물 때 그룹마다 정해진 숙소에서 숙박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확립되었습니다. 이러한 숙소를 고야도라고 하는데 고야도는 사회의 일부로서 존재했습니다. 오모리에서는 유력한 상인 가문이 고야도를 운영하며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 숙박할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, 다이칸쇼(막부의 직할령을 관리하는 관청)에서 나온 법령 등을 각 마을에 전달하는 역할도 맡았습니다. 아오야마 가문 주택은 이 6 개의 고야도 중 하나로 다기야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었습니다. 건물은 1800 년대 중반에 지어진 것으로 2 층짜리 집과 창고가 세워진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. 특히 하얀 회반죽 벽과 회색 기와, 그리고 검소한 모습의 목조 디테일은 한 번쯤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. 아오야마 가문 주택은 현재 개인이 소유하고 있지만, 종종 일반인에게 공개되기도 합니다.